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딤후 4:7-8a)

사랑하는 교회와 동역자들과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리며, 멕시코에서 사역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곳은 어느새 더위가 깊어지고 예년보다 빠르게 우기철이 다가오는 듯한 공기의 변화를 느끼는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은혜의 바람이 사역의 현장을 시원하게 감싸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헌신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동역자 한 분 한 분이 떠올라 감사의 마음이 깊어집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동역자들의 중보와 사랑은 이곳 사역의 큰 그늘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그늘 아래에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더 멀리 깊은 인디오 마을들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소식을 전합니다.

<2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2024년 4월 1일 인디오 마을에 땅을 구입하고 선을 긋기 시작하며 첫 삽을 뜬 감사선교센터의 예배당 공사가 어느덧 2년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의 목회 사역을 병행하면서 매주 월요일 새벽에 길을 떠나 수요일 저녁 기도회 전까지 돌아오는 일정이 반복되다보니 예상보다 두세 배의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그 모든 과정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풀만 무성한 황무지 같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영혼구원의 소식이 울려 퍼지고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간들이 하나둘 세워져가고 있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세워진 예배당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을 찬양하고, 치과클리닉이 마련되어 치과선생님들의 헌신적인 섬김을 통해 육체적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것이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어 일반클리닉과 인디오 사역자 숙소 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도 감사요 은혜입니다. 아직 숙소가 없어 예배당과 텐트에서 지내며 공사를 돕는 사역자들로 인해 감사가 있고, 멀리 깊은 산속에서 말씀을 배우기 위해 내려오는 인디오 사역자들이 배움과 쉼을 얻고 재충전되는 공간과 청소년들을 위한 배움의 공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건축이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 가운데 안전하게, 그리고 넉넉히 채워지는 은혜의 사역이 되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기쁨>

선교사로 부름받아 사역하며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은, 영혼이 주께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영혼구원의 감격은 바꿀 수 없는 은혜이며, 힘든 모든 순간을 가볍게 만드는 하늘의 위로입니다.



두 차례의 예수영접 모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형제자매로 인해 감격이 있고, 이들이 침례에 순종하며 믿음을 고백하는 간증을 들을 때마다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떠



올라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특히 카르멘 구띠에레스 자매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카톨릭에서 열심히 있던 자매였는데, 어렸을 때 카톨릭에서 받은 영세로 인해 침례 받는 것을 거절했었는데, 올해 부활주간 새벽기도에 참석하며 마음이 열리어 부활주일 아침에 침례에 순종하는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침례에 순종하는 자매의 모습과 간증을 통해 많은 성도들의 눈에 맺혀지는 눈물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감동이 인디오 마을에서도 계속 일어나길 기대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기쁨>



어머니주일을 맞아 새로운 분들을 초청하고, 형제들이 아내와 어머니들을 위해 직접 음식을 준비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초 문화가 강한 멕시코에서 형제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섬김의 자리에 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목장모임을 통해 길러진 섬김의 DNA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자리 잡고 있어 큰 감사가 있습니다. 이 섬김의 문화가 교회를 넘어 이웃과 다른 교회, 그리고 인디오 마을까지 흘러가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 1) 헤수스 마리아 코르테스의 선교센터 - 예배당과 치과 클리닉이 잘 마무리되며 인디오 사역자 숙소와 아이들을 위한 교실 건축이 안전하게 진행되고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도록
- 2) 과달라하라 주님의 교회 - 영혼구원을 통한 제자 삼는 사역이 더욱 견고해지고, 이웃과 인디오 마을을 섬기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 3) 하비엘 & 카르멘 사역자 부부 -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섬김의 영적리더십이 잘 세워져가도록

2026년 5월 멕시코에서
추기성, 정지연선교사드림